



10면

완주군, '안심 보육도시 만들기 박차'

# 전주매일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음 8월 29일) 제33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도지사가 11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운영상황 등을 살펴보고 핵심멤버들과 개별미팅을 갖는 등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개회식에서 김 지사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내년 한인비즈니스 유치 본격 행보

김관영 도지사, 제21차 대회 참가 본격 유치활동 시작  
도,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전통문화 접목 대회준비  
“전북의 맛·멋·변화상 경험케 할 것” 강한 의지 표출

공공외교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지사가 오는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 등 전북도 방문단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 참석, 대회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2024년 대회의 전북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전북도는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의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협력 체계 구축하고, 세계 각국의 한인 비즈니스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접촉을 강화해 왔다. 도는 이와 함께, 전북이 지닌 전통과 문화에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을 연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한상대

회 개최를 강조하며 대회 유치에 강한 의지를 표출해 온 상황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해야 하는 당위성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이날 기업전시회에 참가한 20개 전북 기업 전시관을 방문해 도내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회식에 공식 참석해 전북도의 유치활동을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전북에서는 2024년 대회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

다”며 “세계속의 한인 최고경영자들에게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북에서 맛과 멋, 변화상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대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컨벤션이라는 한 공간에 머무르는 대회가 아닌 전통 문화와 환경 등을 모두 활용한 전혀 새로운 대회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전북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30일까지 개최지 접수를 받으며, 11월 현지 실사, 12월 운영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 전북 혁신도시에 대학 캠퍼스 들어선다

전주기전대, 국토부 혁신융합캠퍼스 공모 선정

전주기전대학교가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한국해양대(부산), 동산대(전남), 대구한의대를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했으며, 올해 일반

대학으로 한정된 신청대상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한 결과 전주기전대학교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기전대학교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학협력과 지역의 유망 신산업,



기전대 혁신융합캠퍼스 조감도

창업분야에 대해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캠퍼스 구축 및 운영비로 2026년까지 32억원(국비 16, 도비 8, 군비 8)이 지원될 예정이며, 대학 측은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5,692㎡ 부지에 2024년 하반기 건축을 완료하고 학과 이전 및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백제 국제교류 흔적 서동생가터 정비 중 발견

중국 북주시대 발행 동전 '오행대포' 출토  
백제왕도 역사적 정체성·가치 재입증  
익산시, 발굴현장 오늘 공개... 누구나 참석 가능

익산 '서동생가터' 유적장비 중국내 최초로 중국 남북조시대 발행 동전이 발굴돼 익산이 백제 국제교류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내 최초로 중국 북주(北周)시대에 발행된 동전인 '오행대포(五行大布)'가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373-16 일원인 '서동생가터'에서 출토됐다.

고도 정체성 회복을 위한 고도보존육성사업인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인 익산시와 문화재청은 13일 오전 11시에 발굴 현장과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에 출토된 '오행대포(五行大布)'는 북주(北周)의 3대 황제인 무제(재위 572~577)때인 건덕(建德) 3년(574)에 주조한 화폐로 백제가 남조 뿐만 아니라 북조(북주)와도 활발히 교류를 해 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백제무왕(서동)과 관련된 탄생설화지인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 발굴과정에서 '오행대포(五行大布)'가 발견됨에 따라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백제왕도의 역사적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와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부터 서동생가터 발굴조사·정비, 서동생가터(축실지) 재현, 역사경관 회복을 위한 마뽕지 및 용샘 수변 정비, 탐방로 및 전통정원 조성 등 유적정비 과정을 추진 중이었으며 이번 발견이 두 번째 성과다.

지난해 1차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대형 석축 저운 저장고 2기, 굴림주춧돌 3동, 구상유구(溝, 도랑) 1기, 조선시대 기와가마 5기 등 16기의 유구를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진행 중인 2차 발굴조사에



'오행대포(五行大布)' 앞면. (사진=익산시청 제공)

서는 뚜렷 달인 '직구단정호' 토기가 굴림주춧돌지 초입부 구덩이(길이 104cm, 너비 91cm, 깊이 34cm)에서 출토됐는데, 토기 내부에 '오행대포(五行大布)' 5점이 '卍'자 형태로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땅의 약한 기운을 누르고 선한 기운을 복돋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묻은 지진구(地鎮具)로 추정된다.

발굴현장은 공개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문화재단 구원로 전화(063-241-5897) 문의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문화재청과 함께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익산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연계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백제지역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었던 화폐로는 1971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묘지석과 함께 출토되었던 중국 한 대(漢代)의 '오수전(五銖錢)'이 대표적이었다. /익산=이재훈기자

**부안군의회** 축! 전주매일 창간

###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김광수 의장	 이현기 부의장	 김두례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
 이용님 의원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원	 이한수 의원

포털사이트에서 **부안군의회** 을 검색하세요 <https://council.buan.go.kr>